

鄭理化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오만과 편견』 연구 :
부모의 역할과 엘리자베스 결혼

2005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英語教育 專攻

金 裕 貞

『오만과 편견』 연구 :
부모의 역할과 엘리자베스 결혼

鄭 理 化 教 授 指 導

이 論 文 을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4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英語教育 專攻

金 裕 貞

認 准 書

金裕貞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7
1. 베넷부부	7
2. 엘리자베스의 결혼	33
III. 결론	59

참고 문헌

영문 초록

논문 개요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은 통상의 예절과 관습을 중시한 영국 상류층과 그들의 현상중시 풍조에 대해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1813)에서 풍자한다. 재산과 신분에 우위를 두는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보편화된 통념을 통렬히 비판한다. 작가는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Elizabeth Bennet)의 부모를 그 당시의 불완전하고 변화의 가도에 있던 사회의 상징처럼 우스꽝스러운 인물들로 그려 놓았다. 그들은 딸들을 성장시켜 사회 속에 융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베넷씨(Mr. Bennet)는 현실 도피적인 인물로서 그 역할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어머니인 베넷부인(Mrs. Bennet)은 자식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베넷부부의 부모상을 설정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 속에 나타난 부모의 역할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베넷부부라는 부모상과 가드너 부부라는 대리부모상은 엘리자베스의 변화 및 성숙의 과정에 있어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가를 고찰해 본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주인공과 그녀의 긍정적인 자질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엘리자베스가 보여주는 지성, 분별력, 풍자적 시각은 전통적으로 규정지어졌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로 장식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여성들의 변화만큼이나 남성들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작품 속에서 여성을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귀 기울이며, 조화를 이루는 다아시(Fitzwilliam Darcy)의 모습은 인습에 젖거나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회

를 일깨워, 새롭고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고자 제시하는 남성상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 각자의 오만과 편견을 돌아보며 인식의 변화를 겪고 정신적으로 성숙을 하게 된다. 상호 작용을 통한 양성간의 바람직한 이해관계 도출은 동반자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인습에 젖어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회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전환 단계이다. 엘리자베스는 제인(Jane Bennet)의 여성적 아름다움이나 리디아(Lydia Bennet)의 부드러움과 애교를 지니지 못했다. 반면 그녀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자질로 여겨지는 지성, 분별력, 풍자적 시각 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신이 이성적 존재임을 주장하고, 오만과 편견이라는 결점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이성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면모를 보여준다. 『오만과 편견』에 제시된 엘리자베스는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면서 당시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이 이성적인 행동 양식을 갖는 것이라고 보여준다. 인습에 젖어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회에 나타난 이러한 서술은 전통적으로 규정지어졌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새로운 여성상이자 자녀상으로 엘리자베스를 제시하고 그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남성상이자 자녀상으로 다아시를 제시한다. 다아시도 엘리자베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결함을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반성한다. 남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자아 인식 과정이 아닌 양성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이해관계를 도출함으로써 동반자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인 것이다.

I. 서론

영국은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위주의 계급사회에서 근대적 산업국가로의 탈바꿈이라는 사상 초유의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사회구조와 질서가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에 부와 권력을 독점해 왔던 상류층은, 나날이 커져 가는 중산층의 경제력과 정치력으로 인해 자신들만의 특권을 더 이상 유지시키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1792년 출간된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여권옹호』에서는 여성이 단순한 성적 대상물이나 사회적 대상으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하며, 그러한 투쟁 행위는 사회진보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해 갈 수 있는 개체라는 사실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12). 인습에 젖어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일깨워, 새롭고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여성의식은 당시의 여성 권리 옹호 운동과 일맥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여성의 지위를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당시의 한정상속제도¹⁾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울스톤크래프트는 여성에게서 이성

1) 한정상속제란 형제 중에 다행히 남자가 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출가할 때 부모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다소간의 지참금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제도였다. 그러므로 모녀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는 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되어 있었다. 또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더라도 그것은 곧 남편의 재산에 흡수되어 사실상 재산에 대한 권리로부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남편의 유고시에는 장자가 이 돈의 액수에 따라 연금을 미망인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예측과 더불어 직업의 기회마저 박탈되는 사회제도로 인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을 부정하는 18세기적 견해나 낭만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녀는 또한 하나님을 여성을 남성의 반려자로 만들었다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고 따라서 여성 역시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했다. 울스틴크래프트는 여성을 감성적 존재로만 여겨서 중국에는 남성의 노리개로 전락시키는 당대의 여성교육을 비판하면서 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성적 사랑, 상호이해, 존경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결혼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울스틴크래프트의 급진적인 이론과 주장에 관한 비평가들의 찬반 의견들이 많다. 울스틴크래프트가 사회·철학적으로 주장한 이론을 『오만과 편견』에서는 넓은 여성 독자 및 관중들에게 소설의 장르로 전달하려고 했다. 『오만과 편견』의 쟁점을 두고 찬·반의 논평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심슨(Richard Simpson)은 19세기의 여성작가로서 오스틴은 그녀의 작품에서 국내외의 커다란 사건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초연히 작품을 썼다고 말하며(337), 트릴링(Lionel Trilling)은 오스틴이 시골 가정 생활, 결혼 등 개인적인 문제만을 다루어 소재의 한계성을 나타냈으며, 자신만의 협소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82). 태너(Tony Tanner)도 오스틴은 한적한 농촌 사회의 지주 계층의 결혼이라는 한정된 주제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실제 사회 변동과는 무관한 작가(99)라고 언급했다. 그런 반면에, 브라운(Julia Prewitt Brown)은 오스틴을 영국 소설사에서 가장 먼저 가정 생활에 의미를 부여한 작가이자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결혼과 가족의 문화적인 의의를 제대로 주장한 최초의 작가라고 칭송(1)하였다. 『오스틴의 소설들』을 쓴 브라운은 오스틴의 소설들이 결혼과 가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윤리적으로 변동하는 시기의 결혼과 가족 역할의 문화적 중요성(68)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스틴은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 한결같이 시골 혹은 소도시의 중류 가정을

배경으로 한 결혼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그녀의 소설 세계가 영국 농촌의 한 지역에 속하는 좁은 영역으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선정적 문제들을 배제하고 소재의 영역을 가정 생활 위주로 일관한 것은 진리가 인간 주변에 있는 것이라는 작가의 신념에 비추어 소홀히 다루기 쉬운 인간 본성의 추구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알렌(Walter Allen)은 오스틴의 작품이 그 소재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어떤 작가들 보다 소설의 본질에 대해서 배운 바 크다(112)고 했다. 겐트(Dorothy Van Ghent)는 또한 오스틴에게서는 작은 소재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완성하였는가 라는 면을 고려한다면 이 면에서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99)이라고 했다. 것처럼 한정된 사회를 다루고 있다하더라도 오스틴은 그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관찰하고 있으며, 여성과 결혼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중상류층 사회의 일상 사교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스틴의 작품에서 제외되거나 한계지어진 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그것이 그녀 개인의 경험의 한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스틴이 그녀의 소설에서 어떤 부분을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은 곧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재를 선택하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드류(Elizabeth Drew)에 의하면 오스틴이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을 소재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오스틴이 당시의 사회변화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The world that Austen creates in her novels is as it is because she chooses to make it so: the restrictions of scope are self-imposed. She narrowed her field to domestic life in the country village not because she

knows of nothing else, but because she felt that this setting was what she needed for concentrating the essentials of her vision(19).

오스틴이 그녀의 소설에서 창조해 낸 세계는 그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범위의 제한은 스스로 자진하여 만든 것이다. 그녀가 그녀의 소설의 영역을 시골 마을의 가정 생활에 한정을 시킨 것은 그녀가 돌아가는 세상일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소설에서 이 소재의 한정이 그녀 소설의 정수를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만과 편견』에는 사회의 고루한 인습에 묶여서 살아오던 여성의 존재 문제가 첨예하게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틴의 주인공은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의 요구를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서 자아발전과 더불어 인식의 깨어남을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최초의 오스틴 찬미자인 스캇(Walter Scott)은 비평 기사에서 오스틴이 그녀 주변의 평범한 일상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과 그 사건을 대처해내는 인물을 다루는데 있어 탁월한 독창성과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극찬한다.

작품 『오만과 편견』은 런던 교외 롱번(Longbourn)이라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서 결론은 주인공들의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남녀가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도달하게 된다는 평범한 줄거리이다.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결혼을 통해서 상징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사회화과정 즉, 개인이 사회를 받아들이고 그 사회 속에 융합되어 간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회관인 것이다. 『오만과 편견』의 원제목은 ‘첫인상(*First Impression*)’이었다.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과신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하는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실체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겪는 우여곡절을 작가는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개인의 사회적 성숙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오만과 편견』은 제목으로 내세운 오만과 편견처럼 첫인상과 진실한 사랑에 대한 대조를 통해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당시의 통념적인 결혼은 아니었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이상적인 결혼을 통해 계급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난다.

『오만과 편견』이 오스틴 소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는 엘리자베스라는 매력적이고 재치있는 여주인공 때문이라 할 수 있다(Allen 113). 그 어느 주인공도 엘리자베스가 지닌 발랄한 성격과 진취적인 솔직함과 날카롭게 논쟁을 벌이는 총명함을 능가할 수 없다.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지성, 성실함,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기와 강한 자신감은 몇 가지의 예들이다. 오스틴도 1813년의 편지에서 엘리자베스에 대해 “내가 쓴 작품의 주인공들 중 가장 유쾌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296).

『오만과 편견』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체계로서 남녀간의 주종관계가 작용하던 사회였으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제약을 받던 시기였다. 『오만과 편견』에서 오스틴은 엘리자베스의 부모를 그 당시의 불완전하고 변화의 가도에 있던 사회의 상징처럼 우스꽝스럽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인물들로 나타나 있다. 아버지인 베넷 씨는 현실 도피적인 인물로서 그 역할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어머니

인 베넷부인은 자식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넷씨는 다섯 딸 중에서 둘째이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자신과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딸들에게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막내딸 리디아의 타락을 조장했다고 보여진다. 그녀는 딸의 타락에 직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베넷부인은 그 시대의 혼란된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그녀는 돈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여 딸들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노예적 인간관계를 가르쳐준다. 베넷부인은 가장 사랑하는 딸인 리디아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르쳐준 결과로 딸의 불행을 불러온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자식을 교육하는 것에 무능한 부모와 당시 사회의 양상을 제시하는 한편,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주인공에게 내적 자질을 준비시키고 결국 훌륭한 이웃 그리고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주어진 인식과 그 억압을 살펴보고, 이성을 지닌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를 통해 사회의 인식 변화를 시도하였다. 나아가 변화된 남성과의 이상적 결혼을 시도하게 된다. 본 논문은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이상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실패와 좌절을 겪게되는 요인이 무엇이며,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내적 성장을 겪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엘리자베스의 결혼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II. 본 론

1. 베넷부부

듀발(E.M. Duvall)은 성장기에 있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식의 성장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가정환경을 준비하여 자식의 개성을 존중해 주고 자식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다. 레이디 캐더린(Lady Catherine)과 엘리자베스의 대화에서 레이디 캐더린의 태도가 그 시대 중, 상류계층의 부모가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18세기의 자녀 교육관을 보기 위해서 레이디 캐더린과 엘리자베스의 대화를 보기로 한다.

"Then, who taught you? who attended to you? Without a governess you must have been neglected." "Compared with some families, I believe we were; but such of us as wished to learn, never wanted the means. We were always encouraged to read, and had all the masters that were necessary. Those who chose to be idle, certainly might."(127)

“그렇다면 누가 자식들을 가르쳤지? 누가 챙겨주고? 가정 교사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방치되었을 텐데.” “어떤 가족과 비교하면 방치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배우고 싶을 때 방법이 없어서 못 배운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책을 읽도록 권장해 주셨고, 선생님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구해 주셨지요. 물론 게으르게 지내고 싶어한 사람은 그럴 수 있었겠지요.”

레이디 캐더린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사회구조와 엘리자베스가 그것을 꿰뚫어보면서 주체적인 교육의 구조를 제시하고 허례허식이 없는 참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엘리자베스가 자기 주도적 교육,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교육을 제시하는데 반하여 부모로서의 베넷부부는 안이한 사고방식과 준비성 없는 자세로 방임적인 초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When first Mr. Bennet had married, economy was held to be perfectly useless; for, of course, they were to have a son. This son was to join in cutting off the entail, as soon as he should be of age, and the widow and younger children would by that means be provided for. Five daughters successively entered the world, but yet the son was to come; and Mrs. Bennet, for many years after Lydia's birth, had been certain that he would. This event had at last been despaired of, but it was then too late to be saving. Mrs. Bennet had no turn for economy, and her husband's love of independence had alone prevented their exceeding their income(234).

베넷 씨가 처음 결혼하였을 때에는, 절약이란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였다. 당연히 아들을 가질 것이고, 이 아들이 성인이 되는대로 한정상속이 해제될 터이니, 그것으로 미망인과 동생들은 부양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딸만 줄줄이 다섯이 세상에 나왔고, 사내아이는 나와주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리디아가 태어나고 여러 해 동안이나 자신이 사내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희망은 결국 포기했지만, 저축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베넷 부인은 절약에 전혀 소질이 없었고, 오로지 남편의 자립심 덕택에 겨우 수입을 초과해서 소비하는 것만 피했던 것이다.

베넷씨는 아버지로서 인생이라는 긴 항로를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대비하고 딸들과 아내 그리고 자신의 노후까지도 준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았던 것이다. 그 무책임과 무분별은 막내딸 리디아의 타락으로 그 절망의 끝을 달리게 된다.

다음으로, 부모는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창조하여야 한다. 부모의 협동적이고 애정 어린 관계는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넷부부는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결여된 것을 작품 초반부부터 만나게 된다. 베넷부인이 빙리가 이웃에 거주하게 되어 잘 된 일이라고 들떠있을 때 베넷씨는 남편으로서 신중하게 부인과 딸들의 장래를 대비하고자 의논을 하는 대신에 단지 비아냥거리면서 “How so? how can it affect them?” “아니 왜?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기에?”(1)라며 베넷부인을 응수

할 뿐이다. 솔직하고 신중하게 장래를 대비하는 태도대신 부인의 방정맞은 경박스러움을 비꼬면서 딸들의 장래를 걱정하기는커녕 즐기고만 있다. 남편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베넷씨로 인한 가족의 시련이 시작될 것이 예견된다.

부모의 자질 중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실수나 약점을 자비로운 태도로 받아들여 피할 수 없는 실수나 과오를 인정하고 책망보다는 격려로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베넷씨는 가드너씨가 조카 리디아를 위하여 사건을 해결했다는 서신을 받고 처남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더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간청했지만, 리디아에게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 마디도 전하지 않았다(235)는 대목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역할대신 방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만을 유지하여 가정이 파멸의 위기에 놓이고 이런 큰 소동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그는 또다시 방관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는 개인적인 인간으로서 또는 결혼한 부부로서 지속적인 발달을 피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역시 베넷부인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변덕스러운 여성으로서 23년 동안의 긴 결혼생활 후에도 남편의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베넷씨는 날카로운 기질과 신랄한 유머, 신중함과 변덕이 혼합된 성격의 소유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베넷부부가 대화의 단절로 인해 서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콜린즈의 청혼을 거절하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베넷씨의 말에서 잘 보여준다.

"... I understand that Mr. Collins has made you an offer of marriage. Is it true?" Elizabeth replied that it was." Very well—and this offer of marriage you have

refused?"

"I have, Sir."

"Very well. We now come to the point. Your mother insists upon your accepting it. Is not it so, Mrs. Bennet?"

"Yes, or I will never see her again."

"An unhappy alternative is before you, Elizabeth. From this day you must be a stranger to one of your parents—Your mother will never see you again if you do not marry Mr. Collins, and I will never see you again if you do."(85)

"콜린스씨가 네게 청혼한 걸로 아는데 그게 사실이야?"
엘리자베스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좋다. 그런데 그 청혼을 거절했던 말이지?"

"그랬어요, 아버지."

"좋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다. 네 어머니께서는 네가 그 청혼을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소, 여보?"

"그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신 저 애를 보지 않겠어요."

"아주 불행한 선택이 네 앞에 놓여 있다. 엘리자베스. 오늘 이후로 너는 부모 중 한 사람과 남남이 되어야 한다. 네가 콜린스씨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너를 다시는 안 볼 것이고, 만일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듀발이 제시했던 자질 중에서 준비하는 부모의 역할과 부부의 애정 어린 관계제시가 결여된 모습이다. 딸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에서조차 의견의 합의를 찾아내지 못하는 베넷부부 사이에는 실제로 서로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상호간 의식교류의 부재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결국 베넷부부의 결혼은 서로의 인생을 조화롭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서 엘리자베스는 참된 사랑, 진실된 상호 신뢰와 존경, 애정을 갈망하면서 관찰하게 된다.

아버지인 베넷씨는 가족의 결점을 보고 그들을 조소하며 이 작품의 대부분에서 현실세계를 등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부인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과 평생동안 바보스럽고 비속한 아내에게 묶이게 되었으며, 부자연스럽게 가족들로부터 고립되는 결혼생활을 유지한다.

He had never before supposed that, could Wickham be prevailed on to marry his daughter, it would be done with so little inconvenience to himself, as by the present arrangement(234).

그는 위컴이 자기 딸과 결혼하게끔 설득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부담이 지워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다.

That it would be done with such trifling exertion on his side, too, was another very welcome surprise; for

his chief wish at present, was to have as little trouble in the business as possible. When the first transports of rage which had produced his activity in seeking her were over, he naturally returned to all his former indolence(235).

그가 웬 떡이냐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쪽에서 이렇게 조금만 꿈쩍거리고도 일이 처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그가 가장 바라는 바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일로 해서 귀찮아지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처음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리저리 딸을 찾아다닌다고 했지만, 이제 그 분노도 끝이 나니, 그는 자연스럽게 본래의 게으른 태도로 돌아왔던 것이다.

리디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회피하면서 보여주듯이, 그는 진중한 결정이나 진실에 대한 어떤 의무가 지워져서 그의 초연함을 위협하게 될 가족내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서재로 피해 들어간다. 그리고 어머니 베넷 부인은 딸들을 어떻게 돈 많은 남자와 성공적인 결혼을 시키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의 성공적인 결혼이란 연간 수입이 얼마냐 하는 문제와 관련 깊다. 재산이 많은 모든 독신남자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에는 상관없이 베넷부인을 흥분시키고 그를 알아보기도 전에 자기 딸 중에 하나를 그들과 결혼시키려고 한다.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어머니를 가진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면서 초연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을 방어해 나간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초도로우(Nancy Chodorow)가 주장하듯 성격 형성에 의식적이든 무의식

적이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왜냐하면 남녀 모두의 경우 그들이 일찍부터 접촉하는 성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즉 남자와 여자의 성격의 차이가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이 주로 여자이며 특히 딸의 경우는 늦게까지도 어머니와의 상호접촉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149).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엘리자베스의 초기 경험인 베넷부부가 보여주는 부모역할과 가드너 부부라는 대리부모상은 그녀의 인식의 변화 및 성숙의 과정에 있어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가를 고찰해 본다.

부모의 역할은 듀발의 이론들을 요약하면 부모는 생물학적, 유기체적 존재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본적 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적절치 못한 환경은 인격형성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적절한 사회화의 역할을 부모가 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은 성장이 중지되거나 늦어진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지체현상은 부모역할의 박탈에서부터 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방법의 유능함의 정도는 부부간의 친화정도에 정비례한다고 한다. 부부간의 불화가 무능한 어머니를 만든다는 것이며, 부부간의 불화가 아내로 하여금 무능한 어머니가 되도록 하며, 결혼생활의 긴장과 갈등이 자녀양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녀를 가족체계 내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가족구성원간의 모든 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가족은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보다 큰 사회 조직체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와 고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베넷부인은 스스로를 개선할 환경이나 교육을 통한 배움의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했다. 그리고 딸들이 결혼을 통해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됨

으로서 베넷부인은 그녀의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295)을 갖는다. 그는 젊었을 때의 열정으로 베넷부인의 젊음과 미모 그리고 활기에 현혹되어 결혼했었고, 곧 그녀의 우매함과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부부 서로간의 존경과 신뢰감을 상실함으로써 미래의 행복에 대한 그의 기대는 깨어져 버린다. 이들 부부는 이성적이고 지적 대화의 기회를 상실한 채 베넷씨는 서재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는다. 작품 속에서 베넷씨의 딸들에 대한 태도는 따뜻하다기 보다는 냉담하며 지원적이기 보다는 방임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I hope, and pretend to be affronted at an idle report. For what do we live, but to make sport for our neighbours, and laugh at them in our turn?' "우리 이웃들을 위해 장난거리를 만들고 우리편에서 그들을 비웃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니?"(278)라고 말하는 것에서, 베넷씨가 사회적 관계들을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무책임함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빈(Marvin Mudrick)은 이런 베넷씨의 태도가 모순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압도시킨 사회에 대한 저항이고, 자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며, 이것은 사회에 대한 그의 아주 가벼운 승리이지만, 바로 그것만이 그에게는 현재 가능하다(102)고 지적한다. 또한 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지성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 그의 무책임함은 자신의 재산이 한정상속이고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서 또 나타난다. 그는 아들을 낳으면 한정상속이 풀릴 것이라는 안이함으로 저축으로써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베넷부인과 진중하게 상의를 하여 미래를 대비하려는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래도 딸들이 맞게 될 불행에 완전히 무관심할 수 없는 그는 아내에게 빙리(Charles Bingley)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결

국 그는 가족들 몰래 빙리를 방문하게 된다. 세상사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베넷씨 조차 딸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여성의 경제적 억압에는 완전히 무관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에서 배우자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던 베넷씨는 엘리자베스에게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충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현명한 충고를 저버리고 베넷씨는 리디아를 브라이튼으로 보냈다가 그녀가 위컴(George Wickham)과 함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잠시 후회와 낙담으로 자신의 무책임함을 자각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아버지인 자신은 제외된 채 해결되는데 대한 분노보다는 자신에게 별 불편을 주지 않고도 해결된다는 데 대해 안심한다. 게다가 처음의 격한 분노가 사라지자 베넷씨는 본래의 나태함으로 돌아가 버린다.

베넷부인을 노골적으로 비웃는 베넷씨의 태도와 그로부터 따듯한 보살핌을 거부당한 딸들이, 베넷씨를 존경할 수 없거니와, 어머니 베넷부인을 딸의 모델로 인정치 않는데 거기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인식이 발생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지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베넷씨와 베넷부인의 대화를 보면 베넷씨는 딸들의 어리석은 양상과 자신의 처지를 분리시킴으로써 사회에서 벗어났다는 회피양상을 보이고 사회에서 곁도는 양상을 보인다.

"From all that I can collect by your manner of talking, you must be two of the silliest girls in the country."....."I am astonished, my dear." said Mrs. Bennet, "that you should be so ready to think your own children silly. If I wished to think slightly of

anybody's children, it should not be of my own however.”(21)

“너희들 말하는 꼴을 보니 너희들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제일 어리석은 아이들이다.”.....“여보 전 놀랐어요.”라고 베넷부인이 말했다.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보고 어리석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누굴 홍보고 싶으면 다른 집 애들이나 홍보지 우리 애들을 홍보다니요.”

베넷씨의 여동생이 필립스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메리튼에 살고 있는데 키티와 리디아가 소식도 들을 겸 주둔하고 있는 국민군에 대한 관심도 펼칠 겸 그곳에 자주 갔다와서 그 일에 관해서 소일 삼는 것에 대해 베넷씨는 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베넷씨는 따뜻한 사랑이나 아버지로서의 엄격함보다는 냉담함과 냉소적인 태도로서 비판을 할뿐이고 베넷부인은 붉은 군복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흥미꺼리라고 딸들을 무조건 두둔한다. 베넷씨와 베넷부인 둘 다 부모로서 자식교육에의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베넷씨는 아버지로서 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희망을 안겨주어야 된다.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적절히 안목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역할 즉, 딸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부모로서의 지도 및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적인 지도와 관심이 결여된 환경에서 딸들 중 엘리자베스가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띠고 그 양상은 독립적인 이성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편협함을 반성하는 겸손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희망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엘리자베스는 부모의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개인적 판단능력을 키우고, 베넷부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의지는 또한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가부장적 한정상속으로 인해 여성들의 삶과 활동영역에 제한받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로 나타난다. 베넷부인의 경우를 바로 사회구조의 부조리로 인한 양상으로 보고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배우며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반스(Mary Evans)는 18세기 젠트리 계급의 미혼의 딸들이 직면해 있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베넷부인의 관심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결혼에 대한 강박관념적인 관심과 딸들과 결혼할 남성에게 대한 그녀의 끊임없는 추구는 베넷씨의 냉소적인 무관심에 비한다면 보다 능동적인 책임감을 나타내 주는 예가 된다(7)고 말한다. 『오만과 편견』의 마지막 부분에서 경솔하고 맹목적이기까지 했던 베넷부인의 태도와 성격은 그녀 자신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억압적인 사회환경의 산물이었음을 일깨워준다.

I wish I could say, for the sake of her family, that the accomplishment of her earnest desire in the establishment of so many of her children, produced so happy an effect as to make her a sensible, amiable, well-informed woman for the rest of her life. (295)

그녀의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들을 좋은 데로 시집보내고 싶은 그녀의 열렬한 소망이 그렇게 여러 명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여생에는 그녀가 지각 있고 상냥하고 유식한 여자가 되는 행복한 결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남편인 베넷씨에 관한 제한적인 베넷부인의 이해능력의 이야기다.

Mr. Bennet was so odd a mixture of quirk parts, sarcastic humour, reserve, and caprice, that the experience of three and twenty years had been insufficient to make his wife understand his character. Her mind was less difficult to develop. She was a woman of mean understanding, little information, and uncertain temper. When she was discontented she fancied herself nervous. The business of her life was to get her daughters married; its solace was visiting and news.(3)

베넷씨는 재기, 냉소적인 기질, 내성적 성격, 변덕 등이 워낙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사람이라, 23년을 겪어보고도 그의 부인은 남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부인 편이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그다지 어려울 게 없었다. 그녀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아는 것도 없고, 기분이 들쭉날쭉한 여자였다.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는 신경증이 도진다고 제멋대로 생각했다. 그녀 평생의 사업은 딸들을 출가시키는 것이고, 낙이라고는 이웃집을 방문해서 수다 떠는 것이었다.

아버지인 베넷씨와 어머니인 베넷부인은 서로 이해하고 대화가 통하는 관계가 아니다. 베넷부인은 남편의 감정과 미묘한 정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베넷씨가 내뱉는 비꼬는 말투나, 그 저변에 깔린 심층구조를 이해할 줄

아는 정신적 수용력이 부족한 것이다. 무능력한 부모라는 환경을 설정한 부분을 살펴 볼 때 베넷씨의 재산은 일년에 겨우 2천 파운드 정도이고 그것마저도 그가 죽게 되면 콜린즈에게 상속이 된다. 그러므로 재산으로는 딸들에게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베넷부인에게는 결혼만이 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한정상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콜린즈를 미워하는가 하면, 한정상속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하겠다는 그의 의도에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그의 어리석음과 비굴함을 확인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에게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는 우매함을 보인다. 이런 베넷부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폐단은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으로 적당한 수입이 있는 남자와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도록 수동적으로 인습에 젖어있는 사회상이다. 그녀의 행동과 생각은 항상 부조화와 미성숙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우스꽝스럽고 희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베넷부인 생각은 큰딸 제인은 빙리씨와 짝지우고 둘째딸 엘리자베스는 콜린즈씨와 결혼시키려고 맘을 먹고 한껏 들떠 있다가, 콜린즈씨의 구혼을 거절한 엘리자베스의 태도에 놀라고 분개하여, 엘리자베스를 베넷씨에게 데리고 가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녀를 콜린즈씨에게 시집보내려고 베넷씨의 응원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미 콜린즈씨의 인간됨됨이를 꿰뚫어 본 베넷씨는, 자신의 재산이 한정상속으로 콜린즈씨에게로 넘어간다고 해서 사랑하는 딸 엘리자베스를 그와 결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베넷씨와 베넷부인의 태도이다. 베넷부인이 남편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면은 비판보다는 동정을 사기에 충분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이 안타까움과 그녀에 대한 연민은 작품의 끝까지 이어지게 된다. 베

넷부인은 리디아가 도망가 버리자, 어머니로서 잘못 판단하여 방임해둔 책임에 대한 인식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야단법석을 떨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안될뿐더러 오히려 차분히 집안분위기를 돌리려고 애쓰는 제인과 엘리자베스보다 미숙한 모습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리디아의 언니인 메리와 키티는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리디아에 대한 염려보다는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무관심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메리의 현학적인 태도는 리디아의 경우에서 자신이 유익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가족들 중에서 제인과 엘리자베스만이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서로를 걱정하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서로서로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고 베푸는 것을 배우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부모의 협동적이고 애정 어린 관계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창조해 낸다고 말한 듀발은 이렇게 설명한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건전한 인간성 발달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즉 인간성숙이란 최대목표는 부모와의 사랑의 경험을 통한 성숙된 사랑을 기반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리디아의 사건으로 메리턴 사회에서는, 석달 전만 해도 매우 호의적이었던 위컴의 평판이 무너지고 그의 나쁜 속성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다. 이것이야말로 오스틴이 주장한대로, 편리하게 바뀌어 가는 잘못된 일반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잘못된 일반론에 의해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특정개인과 일에 대한 평가를 내려선 안됨을 오스틴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리디아의 사건으로 인한 반응과 태도 중에서, 콜린즈씨가 베넷씨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콜린즈씨는 베넷씨에게 지나치게 방임한 탓으로 리디아가 방종한 행동을 했음을 알리며 자신이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지 않아 베넷가와

인연을 맺지 않았음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부모로서 리디아에 대한 애정을 영원히 포기하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그의 편지내용 중 리디아의 성질이 선천적으로 나빠 부모의 방임이 아니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지적은 개인의 성숙과 발달이 환경이나 개인 중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자기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아버지가 리디아 사건의 경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한탄하며 남편과 아버지로써 그의 역할이 소홀했던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책임한 태도로 어떠한 노력도 포기한 채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제인은 물론 자기자신에게도 크나 큰 손실을 가져왔고 리디아의 타락으로 베넷가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왔음을 인식한다. 여기서 엘리자베스의 상황인식 능력과 환경에 대한 인지력은 그녀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버지는 리디아를 찾으러 런던에 갔으나 아무런 결과 없이 돌아온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는 했으나 날카로운 비평을 면할 수 없을 만치 태만한 성격이다. 그는 곧 자책의 감정을 잊고 냉소적인 무관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딸에 대한 애정과 걱정보다는 제 3자로써의 조롱과 냉소적인 마음으로 변한다. 베넷부인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자신의 남동생인 가드너와 다아시의 도움으로 리디아가 위감과 결혼하게 되자 딸의 경박한 잘못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딸이 결혼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서 환희의 고향을 지르며 격렬한 흥분상태에 빠지게 된다.

당대 사회 남성들이 법률, 논리학, 문학, 수사학, 신학 등으로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반해, 여성들은 그러한 교육에서 제외되었으며 그들을 위한 교육은 교양을 갖추는 수준

의 음악, 그림, 춤과 외국어 정도의 남성을 즐겁게 하는데 필요한 제한적인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으로는 자신들의 지성을 계발할 수 없었다고 본다. 아래에 제시되는 예문에서 베넷부인이 어머니로써 부족했던 자신의 자질을 탓하기보다는 가부장제도와 남성우월주의로 남성이 기득권을 갖게 된다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적 요건도 내적 편견의 포용적 시각으로의 변화만큼이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Her eldest daughter endeavoured to give some relief to the violence of these transports, by leading her thoughts to the obligations which Mr. Gardiner's behaviour laid them all under.

'For we must attribute this happy conclusion,' she added, 'in a great measure, to his kindness. We are persuaded that he has pledged himself to assist Mr. Wickham with money.'

'Well,' cried her mother, 'it is all very right; who should do it but her own uncle? If he had not had a family of his own, I and my children must have had all his money you know, and it is the first time we have ever had any thing from him, except a few presents. Well! I am so happy. In a short time, I shall have a daughter married (232).

만딸은 이런 난폭할 정도의 황홀경을 얼마간 가라앉히려 고, 그들 모두가 외삼촌에게 얼마나 큰 신세를 졌는지 어

머니에게 환기시켰다. “이렇게 행복하게 결말이 난 것은, 크게 보아서, 외삼촌 덕택이에요.”하고 제인은 말했다. “외삼촌께서 돈을 써서 위컴 씨를 도와야겠다고 나서신 게 틀림없어요.”

“그래, 아주 잘한 일이다.” 하고 어머니가 소리쳤다.

“외삼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니? 자기 가족만 없다면, 돈은 모두 나와 우리 아이들 차지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선물 몇 번 한 것 빼고는 우리가 개한테 받은 것이라곤 이번이 처음이야. 아무튼 좋아! 난 너무 행복해. 얼마 안 있으면, 딸 하나를 시집보내는구나.

『오만과 편견』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모역할 기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어버렸다. 우선, 부모는 성숙하고 완벽하며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주종 또는 상반적인 개념을 부정한 것이다. 오히려 어머니 베넷부인과 딸 엘리자베스를 비교할 때 엘리자베스의 성숙된 이성적 판단능력이 물질에 집착하고 허상을 쫓는 베넷부인과 대조를 이룬 것이다. 다음은 부모, 자녀간의 생물학적 유대관계를 강조한 자연발생적인 애정 관계의 이론을 재정의 하는데 원초적인 부모의 사랑보다는 성숙된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과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달하려는 적절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론이 『오만과 편견』에서 제시된다. 다음은 리디아의 타락이후 책임감 있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미약하게나마 인식한 베넷씨의 태도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오만과 편견』이 제시하는 또 다른 점은, 제인과 엘리자베스의 성숙된 기질이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발달하는 사례들로 기존의 여성상과 자녀상으로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양

상을 제시하고 있다.

‘You go to Brighton! I would not trust you so near it as East Bourne, for fifty pounds! No, Kitty, I have at last learnt to be cautious, and you will feel the effects of it. No officer is ever to enter my house again, nor even to pass through the village. Balls will be absolutely prohibited, unless you stand up with one of your sisters. And you are never to stir out of doors, till you can prove, that you have spent ten minutes of every day in a rational manner (228).

“브라이턴으로 간다고, 네가! 그 근처에 있는 이스트본 까지도 믿고 보낼 수 없어, 50파운드를 준다해도 말이야! 안돼, 키티, 아빠는 이제야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이제 너부터 적용을 할거야. 이제 다시는 장교는 한 명도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마을을 지나가는 것도 안돼. 언니들하고 춤을 춘다는 조건이 아니면, 무도회도 완전히 금지다. 또 매일 10 분 동안 이성적으로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기까지는 집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리고 다음은 적절한 주의와 감독으로, 리디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자 그전에 비해 덜 조급하고 덜 단순해진 키티의 모습을 설명한 글이다.

Kitty, to her very material advantage, spent the chief of

her time with her two elder sisters. In society so superior to what she had generally known, her improvement was great (295).

키티는 주로 두 언니들과 시간을 보낸 것이 실질적으로 큰 득이 되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있다 보니, 그녀는 크게 개선되었다.

엘리자베스에게 부모대신에, 부모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충고를 해주며 엘리자베스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엘리자베스에게 관심과 애정을 베풀고 있는 인물들이 작품 속에 있다. 다름 아닌 외숙모와 외숙부인 가드너씨와 가드너 부인(Mrs. Gardiner)인 것이다. 다음은 가드너씨와 가드너부인에 대한 설명이다.

Mr. Gardiner was a sensible, gentlemanlike man, greatly superior to his sister as well by nature as education. The Netherfield ladies would have had difficulty in believing that a man who lived by trade, and within view of his own warehouses, could have been so well bred and agreeable. Mrs. Gardiner, who was several years younger than Mrs. Bennet and Mrs. Phillips, was an amiable, intelligent, elegant woman, and a great favourite with all her Longbourn nieces. Between the two eldest and herself especially, there subsisted a very particular regard(108).

가드너 씨는 천성으로 보나 교육받은 정도로 보나 누이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각 있고 신사다운 사람이었다. 네더필드의 숙녀들이 그를 보았더라면 자신의 짐포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장사꾼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 바르고 싹싹할 수 있느냐며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베넷 부인이나 필립스 부인보다 몇 년 손아래인 가드너 부인은 상냥하고 총명하며 우아한 여성이었고 롱본의 조카딸들 모두 그녀를 많이 따랐다. 특히 그녀와 맨 위 두 조카딸 사이에는 각별한 존경과 애정이 있었다.

가드너 부인은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얻고 있는 위컴에 대한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기를 엘리자베스에게 충고해주고 있다. 충고의 내용을 보면 베넷씨의 기대와 충애를 받고 있는 엘리자베스인 만큼 재산이 없는 청년과의 사귄에 있어 베넷씨는 엘리자베스의 강한 의지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의외로 베넷씨는 그 면에서는 엘리자베스의 판단력의 실패와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베넷부인의 자식교육 실패와 딸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지할 수 있다.

베넷부인은 위컴에게는 호감을 느끼고 다아시는 오만한 청년으로 인식하여 엘리자베스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 가드너부인의 사려 깊은 생각과 충고가 엘리자베스의 각성 과정과 온당하게 일치되어 보이는 면이 있다. 그 뒤 위컴은 1만 파운드의 돈에 의해 킹양에게로 관심이 옮겨갔는데 엘리자베스는 가드너부인과 그것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눈다. 위컴과의 일에서 별로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위컴이나 킹양에게까지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는

"Pray, my dear aunt, what is the difference in matrimonial affairs, between the mercenary and prudent motive? Where does discretion end, and avarice begin? Last Christmas you were afraid of his marrying me, because it would be imprudent ; and now, because he is trying to get a girl with only ten thousand pounds, you want to find out that he is mercenary."(118)

“근데, 외숙모, 결혼에 있어서 돈만 밝히는 것과 신중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신중함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고 탐욕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딘가요? 지난 크리스마스엔 그 사람과 제가 결혼하게 될까 봐 걱정하셨잖아요. 경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만 파운드의 재산을 가진 아가씨와 결혼하려 한다고 그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위컴에 대해 재인식할 기회를 얻는다. 이에 가드너 부인은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충고로 엘리자베스를 이끌었으며 엘리자베스의 말처럼 그녀에게 어머니를 대신하여 생명과 활기를 가져다 준 존재이었다. 만셀(Mansell Darrel)은 “가드너 부부는 엘리자베스의 정신적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90)고 본다.

엘리자베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주된 자격조건이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엘리자베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우위에 있고 자신의 판단기준만 맹신하여 절대적이라는 편협함을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가드너 내외는 지성과 취미 또는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로 잘난 체하는 오만과 허식적인 태도인 편견이 없는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들이다. 또 그에 걸맞는 예절을 갖추고 있다. 가드너 부인은 충고와 애정으로 위컴에 대한 경고를 주고 펨벌리의 자연의 조화를 체험하게 한다. 엘리자베스는 런던에서 외숙모 가드너 부인으로부터 여름의 관광여행에 동행하자는 제의를 받게된다. 모어스(Ellen Moers)는 문학적 여성주의의 전체 역사를 집밖으로의 여행이라는 은유에 의해 설명한다. 여성인물들은 정원 속에서 보호받으며 안락하게 살다가 인생의 안내자라고 생각했던 부모나 남편, 사회적인 권위들이 오히려 억압자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억압자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원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인 고아가 되려고 한다. 이처럼 억압만이 존재하는 집을 떠나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시발적 행동이자 세계를 발견하기 위한 탐색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여성인물들은 자아충족을 위한 여행을 통해 내적인 가능성들을 인식하려 한다. 때문에 이런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정신적인 의미도 포함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이때의 여행은 새로운 세계로 떠난다는 점과 새로운 세계와 맞선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신적인 일탈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탈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에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내재적이고도 초월적인 욕망이 자리해 있기 쉽다(130).

런던에서 엘리자베스는 외숙모 가드너 부인으로부터 여름의 관광여행에 동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기뻐다. 엘리자베스가 여행을 하면서 가본 곳에 대해 훤히 알고 싶어하는 심리는 복잡한 심리를 가진 인간연구에 몰두하는 그녀의 성격과 연결된다. 정확한 기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녀가 진면목을 보려고 원하는 의지이며 오해라는 시행착오 이후에 다아시에 대한 이해

즉, 재검토 및 재인식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상상력 안에서 뒤섞이지 않길 원하는 것은 다아시에 대한 자신의 심리가 빚어낸 성급했던 경멸 및 혐오감이라는 상징적 요소로 보아야 된다. 다른 여행자들보다는 더 그럴만해야겠다는 의지는 그녀가 자신의 분별력을 과신했으나 그녀의 판단력에 대한 의지가 편견이라는 사고 및 감정 즉 상상력의 개입으로 마구 뒤섞여져 의지와는 반대로 행하게 된 언행들의 암시이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시행착오의 과정을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확인시켜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

And when we do return, it shall not be like other travellers, without being able to give one accurate idea of any thing. We will know where we have gone- we will recollect what we have seen. Lakes, mountains, and rivers, shall not be jumbled together in our imagination; nor, when we attempt to describe any particular scene, will we begin quarrelling about its relative situation. Let our first effusions be less insupportable than those of the generality of travellers(119).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다른 여행자들처럼 자기들이 뭘 보았는지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본 곳에 대해 훤히 알고 싶고 우리가 본 걸 죄다 기억하고 싶어요. 호수와 산과 강들이 우리들의 상상력 안에서 마구 뒤섞이지도 않게 할 것이고, 경치를 하나하나 묘사할 때에도 무엇이 어디 있었는지를 가지고

입씨름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우리들이 먼저 울리는 감탄의 소리는 못 여행자들이 하는 것 같은 참을 수 없이 진부한 그런 흥내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하겠어요

즉 가드너 부부와 동행하게 된 여행의 기능은 베넷부부가 마련해주지 못했던 부모의 역할로서 경청자이고 조언자이며 협력자이자 여행을 제안해줌으로써 열리게 될 새로운 가능성의 안내자로서의 부모다운 내적 자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결국 가드너 부부가 대리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해내고 있는 셈이 된다. 이로써 『오만과 편견』에서는 귀족이 아닌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 부부의 사려 깊음과 교양있는 태도가 나타남으로써 그 당시 상업천시 풍조와 허식중시 풍조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찾도록 해준다. 가드너 부부는 대리부모상으로서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충고로 엘리자베스를 이끌었으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생명과 활기를 가져다 준 존재였던 것이다.

Mrs. Gardiner abused her stupidity. 'If it were merely a fine house richly furnished,' said she, 'I should not care about it myself; but the grounds are delightful. They have some of the finest woods in the country.'(184)

가드너 부인은 그녀(엘리자베스)의 어리석음을 나무랐다. “비싼 가구가 들어찬 훌륭한 집뿐이라면 나도 별 관심이 없을 거다만, 그 터가 아주 멋지거든. 이 고장에서 제일 훌륭한 숲이 여럿 있단다.”

『오만과 편견』에서 펴벌리를 둘러싼 훌륭한 숲들은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물질만능적으로 왜곡된 가치관들을 벗어 던지고 인간적 발달의 가능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가정을 뛰어 가는 것을 보아온 탓에 엘리자베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예민해져 편견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실패와 각성을 중심부로 두고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나 대립의 기회를 다루기보다는 엘리자베스의 심리적 움직임과 변화를 보여주므로 작가의 강한 비판보다는 부모의 무능함과 무책임했던 면이 엘리자베스의 성격적 결함에서 각성으로 이끌었음을 살펴보고 계몽 의지로의 근원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2. 엘리자베스의 결혼

『오만과 편견』에서는 한 인물의 인품을 그가 가지고 있는 영지, 가옥, 살림살이, 장식품, 의복, 행동거지에 투영시켜 표현된다. 사람과 그 사람의 생활 영역은 서로 공감적이다. 웬벌리라는 주거환경이 다아시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웬벌리의 자연 경관과 저택은 레이디 캐더린이 거주하는 로징스와는 달리 자연 그대로와 조화를 살리고 있는 모습에서 모범적이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 영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비평가 사우덤(Brian Southam)은 웬벌리의 영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이 영지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회적 융합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9). 당시 무분별하게 영지를 개량하던 유행에 따르지 않고 전통 그대로를 지켜온 이 영지는 상류층 첸트리의 미덕을 나타내고 있다.

마릴린 버틀러(Marilyn Butler)에 의하면 아름다운 자연과 저택, 조화롭게 배치된 내부 구조 등은 미적인 즐거움을 주도록 꾸며져 있으며, 허식과 지나친 투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215). 이러한 조화는 웬벌리가 갖는 성격과 모범성을 나타내며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에게 다가올 진정한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미래의 삶을 암시한다. 웬벌리라는 장소가 이상적인 결합의 상징으로 쓰였으며 이곳은 장차 여주인공이 속하게 될 가치 있고 안정된 상황을 뜻하며 그들의 결합에 큰 역할을 하고 인공을 가미한 흔적이 없는 천연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웬벌리는 아름답지만 형식적이지도 않고, 어색하게 꾸민 흔적도 없다. 엘리자베스에게 있어서 웬벌리의 이미지는 다아시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여겨진다. 즉 웬벌리는 거짓 꾸밈을 싫어하고 속임수는 절대로 쓰지 않으려는 다아시와 닮아있다. 이 사회에 들어서려면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과 사고방식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사회를

『오만과 편견』에서는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결혼한 부부는 개인의 사회적 목적의 대행자, 즉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교육을 맡게되어 부부가 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게 된다. 즉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여동생 조지아나(Georgiana Darcy)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가르치게 된다. 조지아나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여성과 아내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다. 또 다른 가정을 꾸며나갈 조지아나의 눈에 비친 부부관계의 모습은 평등하며 자유로운 것이다. 또한 엘리자베스의 여동생 키티는 엘리자베스를 통해 걸멋이 아닌, 참된 우아함과 세련된 교양을 배우게 된다.

Georgiana had the highest opinion in the world of Elizabeth; though at first she often listened with an astonishment bordering on alarm at her lively, sportive manner of talking to her brother. He, who had always inspired in herself a respect which almost overcame her affection, she now saw the object of open pleasantry (297).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를 높이 우러러보았다. 처음에는 발랄하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자기 오빠를 대하는 것을 보고 거의 경악하다시피 했지만 말이다. 자기의 애정을 거의 눌러 버릴 정도이고 남의 경의를 자기 자신 속에서 불러일으키곤 했던 오빠가 이제 터놓고 농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을 본 것이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동반자적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만큼 그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남성들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 있는 여성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남성은 가부장제 하에 왜곡된 남녀의 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콜린즈는 다아시와는 달리 이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는 대화가 단절된 일방적 통보만 할뿐이다. 위컴의 경우를 볼 때도, 여성들에게 친절하고 잘 생긴 외모를 가진 그이지만 다아시 아버지 유언에 관한 그의 거짓말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혀 합당치 못한 것으로 결국 조화로운 사회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모습이다. 엘리자베스와 관계에서 그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바로 다아시이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그의 태도는 수직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로서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정신적 인식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이다.

엘리자베스는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독자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이성적인 여성이지만, 다아시의 오만한 첫인상에 편견을 가지는 결함이 있고, 다아시는 지성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남성이지만 지위가 높은 자신의 신분에서 갖게 된 오만함과 자신의 판단을 맹신하여 제인과 빙리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는 결함이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편견들은, 그녀와 관계되어 있는 남성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다아

시와의 관계를 통해 정신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극복된다. 엘리자베스의 자아 인식 과정은 첫째로 콜린즈의 청혼을 받아들인 샬럿의 선택이 불행할 것이라는 편견이다. 엘리자베스는 샬럿이 세속적 이익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샬럿의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불행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샬럿에게는 나름대로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결혼이었음을 알게된다. 둘째로 위컴의 잘 생긴 외모와 첫인상을 통해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 다아시를 오해하게 된 편견은 그녀가 이성을 지닌 여성으로 모든 일을 당당히 대처해 나가는 존재이나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감성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다아시의 오만함에 대한 편견은 청혼과 거절을 통해 심경의 변화를 얻게되었는데, 그것은 첫인상으로 판단한 자신의 과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견과 재능이 가족들보다 뛰어난에 만족하고 그녀의 아버지 베넷씨처럼 가족들에 대해서 소원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이끈다.

'How despicably have I acted!' she cried.-'I, who have prided myself on my discernment!-I, who have valued myself on my abilities! who have often disdained the generous candour of my sister, and gratified my vanity, in useless or blameable distrust.- How humiliating is this discovery!- Yet, how just a humiliation!- Had I been in love, I could not have been more wretchedly blind. But vanity, not love, has been my folly.- Pleased with the preference of one, and offended by the neglect

of the other, on the very beginning of our acquaintance, I have courted prepossession and ignorance, and driven reason away, where either were concerned. Till this moment, I never knew myself.’(159)

“내 행동이 그렇게 한심했다니!” 그녀는 외쳤다. “변별력에 대해서만큼은 자부하고 있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똑똑하긴 하다고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때때로 언니가 너무 너그럽고 솔직하다고 비웃으면서 쓸데없이 나를 의심함으로써 허영심을 만족시켰던 내가! 이제야 깨닫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하지만 창피해하는 게 당연하지! 사랑에 빠져 있었다 해도 이보다 더 기막히게 눈이 멀 수는 없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허영심이었어. 처음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빴고, 다른 한 사람은 특별한 호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난 두 사람에 관해서는 선입관과 무지를 따르고 이성을 쫓아낸 거야. 지금 이 순간까지 난 나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거야.”

엘리자베스는 가족들의 창피한 행동으로 자신과 제인 두 사람의 체면이 얼마나 손상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렸으나,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둘러싼 삶과 사람들이 대부분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거리를 두었던 것에 대해 자신도 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대해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의 한 결과로, 엘리자베스는 메리트에 주둔하던 군대가 브라이언

으로 이동하자 리디아가 포스터 부인의 초대를 받고 브라이튼에 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말 것을 청한다. 그것은 그녀가 가족의 생활 속에 질서와 통제를 가져오려 애쓰는 행동이며, 그녀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한 노력은 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신도 사회에 대해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버지인 베넷씨가 가족사에 무관심하고 초연한 것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게 된다.

Elizabeth, however, had never been blind to the impropriety of her father's behaviour as a husband. She had always seen it with pain; but respecting his abilities, and grateful for his affectionate treatment of herself, she endeavored to forget what she could not overlook, and to banish from her thoughts that continual breach of conjugal obligation and decorum which, in exposing his wife to the contempt of her own children, was so highly reprehensible. But she had never felt so strongly as now, the disadvantage which must attend the children of so unsuitable a marriage, nor ever been so fully aware of the evils arising from so ill-judged a direction of talents; talents which rightly used, might at least have preserved the respectability of his daughters, even if incapable of enlarging the mind of his wife(180-1).

엘리자베스는 자기 아버지의 행동이 남편으로서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을 존경하고 자신에게 애정으로 대해 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했고, 결혼의 의무와 예절이 일상적으로 깨지고 있는 현실을 아예 생각에서 지워 없애려고 했다. 아내가 자식들에게 경멸을 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처사가 심히 못마땅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 자식들에게 끼치는 손해를 지금처럼 강렬하게 느낀 적도 없었고, 재능이 방향을 잘못 잡은 데에서 생기는 해악을 이토록 속속들이 느낀 적도 없었다. 재능을 올바르게 쓰기만 했더라면 아내의 마음을 넓혀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딸들만큼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키워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마지막 단계로 쾨벨리에서 다아시와의 우연한 만남은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자신의 내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아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엘리자베스뿐만 아니라 다아시에게도 인식의 변화과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엘리자베스에 대한 다아시의 오해이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변변한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그의 청혼에 대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열정적 고백이 없이도 당연히 그녀가 허락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태도와 지성, 당당함에 매력을 느끼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되지만 자신의 계

급적 오만함을 극복하지 못한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청혼에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아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가 되었으나 그의 표정에는 사실상의 확신(145)이 나타나 있었다. 이는 그의 지위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재산이 많지 않은 엘리자베스에게는 과분한 혼처였고 당연히 승낙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었다. 이런 그의 심리적 확신은 “상당한 재산을 지닌 독신 남성은 아내를 필요로 한 것이 보편적 진리”(1)인 사회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청혼을 하는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보이는 행동이 아닌 자존심이나 신분 등을 내세우는 오만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를 지적하며 단호하게 말한다.

‘I might as well enquire,’ replied she, ‘why with so evident a design of offending and insulting me, you chose to tell me that you liked me against your will, against your reason, and even against your character?’
(146)

“저도 마찬가지로 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왜 저를 불쾌하게 하고 저에게 모욕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굳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이성에도 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격까지 거슬러 가면서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언니인 제인과 빙리 사이를 갈라놓은 장본인이 다아시임을 알게된 엘리자베스는 그를 비난한다.

'From the very beginning, from the first moment I may almost say, of my acquaintance with you, your manners impressing me with the fullest belief of your arrogance, your conceit, and your selfish disdain of the feelings of others, were such as to form that ground-work of disapprobation, on which succeeding events have built so immoveable a dislike; and I had not known you a month before I felt that you were the last man in the world whom I could ever be prevailed on to marry.'

(148)

“당신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이라 해도 좋을 것 같군요. 저는 이미 당신의 태도를 보고 당신이 거만하고 잘난 체하며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남의 감정은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일들이 쌓이면서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토대 위에 단단히 혐오감이 자리 잡았다고 할까요. 그랬기 때문에 당신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듯 엘리자베스의 비난을 받은 다아시는 황급히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록 그가 계급적 위치에서 오는 오만함과 편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콜린즈나 위컴과 같은 인물들과는 달리 비굴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엘리자베스의 이

야기를 듣는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남성들 같으면 그 여자의 주제 넘는 행동을 비난하고 등을 돌려버릴 뿐이겠지만, 그는 엘리자베스의 비난에 대해 생각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적은 편지를 엘리자베스에게 전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엘리자베스가 정신적 발전을 했듯이, 다아시도 자신의 오만함을 되돌아보며 계급적 속물주의를 극복하는 심리적인 변화를 겪고 성숙하게 된다.

다아시의 면모는, 새로운 여성상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춘 새로운 남성상이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우위를 지닌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적 결함까지 가지고 있는 여성과 동등한 남성인 것이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펨벌리에서 엘리자베스와 가드너 부부가 우연히 다아시를 마주쳤을 때 다정하게 그들을 대하는 행동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He asked her, if she would do him the honour of introducing him to her friends. This was a stroke of civility for which she was quite unprepared; and she could hardly suppress a smile, at his being now seeking the acquaintance of women of those very people, against whom his pride had revolted, in his offer to herself. 'What will be his surprise,' thought she, 'when he knows who they are! He takes them now for people of fashion.'(192-3)

그(다아시)가 동행을 소개해 주지 않겠느냐고 청했다. 그녀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친절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청혼하며 자존심 상해하던 바로 그 사람들과 이제 안면을 트려고 한다는 사실에 미소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분들이 누구인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무슨 상류 사회 사람들로 아나 봐.’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상업으로 성공한 중산층인 가드너 부부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여 심지어는 낚시하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은, 그가 엘리자베스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녀로 인해 그가 지닌 신분적 우월함에서 오는 오만함을 극복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리디아의 사건이 해결된 후,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에게 하는 두 번째 청혼은, 켄트에서 그가 했던 청혼과는 달리, 그녀를 사모하는 자신의 감정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정열적으로 토로한다. 이 청혼에서 다아시 내부적 변화가 굉장히 컸으며 이는 엘리자베스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다아시는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 엘리자베스가 그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가 그녀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As a child I was taught what was right, but I was not taught to correct my temper. I was given good principles, but left to follow them in pride and conceit. Unfortunately an only son, (for many years an only child) I was spoilt by my parents, who though good themselves,(my father particularly, all that was benevolent and amiable,) allowed, encouraged, almost taught me to be selfish and overbearing, to care for

none beyond my own family circle, to think meanly of all the rest of the world, to wish at least to think meanly of their sense and worth compared with my own. Such I was, from eight to eight and twenty; and such I might still have been but for you, dearest, loveliest Elizabeth! What do I not owe you! You taught me a lesson, hard indeed at first, but most advantageous. By you, I was properly humbled(282).

어린 시절에 옳은 것이 무엇이라는 가르침은 받았지만, 제 성격을 고치라는 가르침은 못 받았어요.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오만과 자만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행 했지요. 불행하게도 외아들이었던 까닭에(여러 해 동안 하나뿐인 자식이기도 했고요.), 부모님들이 버르장머리를 그르치셨던 것이지요. 그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셨지만(특히 제 부친은 더할 나위 없이 자비롭고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셨는데), 제가 이기적이고 거만하도록 내버려두고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 자신의 가문 혈족 외에는 아랑곳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죄다 천하게 생각하도록, 적어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가 제 것에 비해서 비천하다고 생각하길 원하도록 말입니다. 여덟살 때부터 스물여덟 살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 엘리자베스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랬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어찌 다 말할까요! 당신은 저에게, 처음에는 정말이지 가혹했지만 다시없이 유

익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당신으로 하여,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 개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가지고 있는 주변 인물들과 다른 성격과 자질을 살펴보고 그들의 개인적 자질이 이들의 이상적 결혼에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그들과 다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제시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독립적 사고능력과 이성적 판단능력을 따른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왜 처음에 서로를 오해했는지, 서로에게 배운 점은 무엇인지, 왜 그들이 결국에 이상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내적 자질을 통해 알아보았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를 살펴보면 이들이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오는 대립을 해결해야 한다. 이들의 대립은 신분과 재산, 개성, 예의범절, 개인, 사회적 전통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월감에 몰입해 있는 다아시의 자기환상은 베넷부인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사하다. 무도회에서의 다아시의 “엄숙함”은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이며, 다아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가장 불쾌한 사람”(11)으로 인식된다. 결국 『오만과 편견』은 다아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아무리 보편적으로 인정된 진실과 걸치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잃을 때 또한 보편적으로 거부되어 지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바로 그 거부되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편견이나 무리수로 인식될지도 모르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러워서 이상적인 역할을 제시할 때는 유언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아무리 이상

적인 부친이라 하더라도 다아시가 오만하다는 인상을 가지도록 유도했다는 다아시의 고백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조차도 그 이면에는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부정적인 모습까지 함께 제시하는 이유는 엘리자베스의 편견도 다아시의 오만도 절대적인 해결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서서히 융화되고 유연해지는 점을 배워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음이다. 다음의 예시문에서 다아시의 이상적인 부모상이 잠재된 자녀로서의 다아시의 환경을 살펴본다.

Mr Wickham is the son of a very respectable man, who had for many years the management of all the Pemberley estates; and whose good conduct in the discharge of his trust, naturally inclined my father to be of service to him, and on George Wickham, who was his god-son, his kindness was therefore liberally bestowed(153).

위컴 씨의 부친은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분은 펴벌리의 재산을 여러 해 동안 맡아 관리하셨는데, 자신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제 부친께서는 당연히 그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대자인 조지 위컴에게도 아낌없는 친절을 베푸셨지요.

My excellent father died about five years ago; and his attachment to Mr Wickham was to the last so steady,

that in his will be particularly recommended it to me, to promote his advancement in the best manner that his profession might allow, and if he took orders, desired that a valuable family living might be his as soon as it became vacant. There was also a legacy of one thousand pounds(153).

제(다아시) 홀륭하신 부친께서는 5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위컴 씨에 대한 애정은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셔서, 제게 그가 직업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지위에 오르도록 도와줄 것이며, 만약 그가 성직을 택한다면 수입이 좋은 자리가 나자마자 임명하라고 특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외에 따로 천 파운드의 유산을 남기셨지요.

His own father did not long survive mine, and within half a year from these events, Mr Wickham wrote to inform me that, having finally resolved against taking orders, he hoped I should not think it unreasonable for him to expect some more immediate pecuniary advantage, in lieu of the preferment, by which he could not be benefited(154).

그(위컴)의 부친도 제 부친이 돌아가신 뒤 곧 돌아가셨는데, 그런지 반년도 되지 않아 위컴 씨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은 성직자가 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했으며, 그러니 자신이 혜택을 못 보게 된 성직

우선권 대신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
가 그런 요구가 당치 않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
습니다.

분별력을 과신하여 우월감에 도취되었던 엘리자베스조차는 다아시의 청혼
을 처음에는 거절하게 되는데 그 이후 다아시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에 대해
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편지를 건네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
만과 편견』에서 중용의 도를 지키는 이상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위컴의
부친과 다아시의 부친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에서 그들의 인
품이 훌륭했던 점만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이들의 부친들은 모
두 책임감 있고 절제를 할 줄 알며 중용의 덕과 도를 인간 행위의 최고 기
준으로 삼아 진정으로 어우러져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 인물
들이다. 그러나 『오만과 편견』에서는 사회적인 억압체제인 한정상속제도
나 여성들의 나약한 의식들과 남성들의 편협된 권위들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는 부친들은 실제로 존
재하지 않고 추구해야 될 목표로서만 존재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
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사회상이라는 목표에 아
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구조는 간접적이다. 어느 쪽으로나 치우침
이 없이 온당한 일,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알맞은 일을 행하는 역할의
부친들이 유언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위컴의 부친이 그저 청
지기라는 지위를 지닌 신분이지만 그의 인품과 역할 수행은 다아시의 선친
이 인정해 주고 있다. 이 점은 완전하게 열린 마음으로 개인과 개인이 서로
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허례허식과 껍데기 속에
감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허울뿐인 예우를 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아시는 서신으로만 존재하는 훌륭한 부친을 많이 닮은 자녀로서 비록 엘리자베스와의 갈등을 겪고 스스로의 우월함에 도취되어 버리기도 했으나 엘리자베스와 이루는 가정에서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다.

브라운이 “결혼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성공적인 실현을 상징하는 문학적 관행”(68)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만과 편견』의 남녀주인공도 결혼전과정에서 여성의 자아를 억압하는 관행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숙을 하게 된다. 당대에서 여성이 유일하게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었으며, 이 결혼을 통해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이 기존의 사회적 관행 및 통념을 개선하여 새로운 사회구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개선 없이는 여성들의 억압을 종결시킬 수 없음을 『오만과 편견』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오만과 편견』이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구조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자기 인식과 공감적인 상호이해를 거친 뒤 가지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오만과 편견』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상에서는 여성이 주체적 인간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했으며, 여성이 한 개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율성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성은 자기 인식과 자기 존중을 가져야 하며, 판단력을 기르고 인습적 사회의 추종자로서가 아니라 한 독립된 개인으로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런 자기 존중은 다른 사람에 대한 능동적 가치 인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남성과 여성의 상보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가능해 질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완벽한 능력을 지닌 인물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함께 인간적인 결함도 지닌 인물로 자신의 장점으로 남성의 시선을 끌 수 있고 남성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아시 또한 장점과 모순된 사회 가치관으로 인한 단점도 함께 지

닌 인물이다. 이런 두 사람의 결합은 남녀 양성이 상호보완을 통해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상적인 결합은 친구 같은 관계로, 진실된 인식의 표식이라 할 수 있다. 펨벌리 집안의 화랑에서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축소된 초상화에 이어 그의 큰 초상화와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진정한 다아시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암시하고 마침내 다아시의 성격에 대한 그녀의 깨달음의 과정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다아시의 편지에 나타난 선친의 훌륭함에서 보여지던 잠재적인 다아시의 계몽을 이끄는 자질은 곧 실제로 등장하는 다아시의 가정부의 증언으로 점차 구체화된다. 펨벌리 저택의 가정부는 다아시가 내일 집에 당도할거라고 전하며 주인의 훌륭한 성품에 대해 한없는 사랑을 늘어놓는다. 그만큼 상냥하고 온화하며 관대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가정부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과연 다아시가 그런 사람인지 의아해 하며 다아시에 관해 많은 얘기가 듣고 싶어진다. 가정부로부터 다아시가 지주로서 얼마나 많은 선행들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난 후,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초상 앞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다아시의 호의와 따뜻함을 느낀다. 아래의 예시문은 가정부 레이놀즈 부인이 다아시에 대해 가깝게 대해오면서 관찰해온 증언이다.

'He is the best landlord, and the best master,' said she, 'that ever lived. Not like the wild young men now-a-days, who think of nothing but themselves. There is not one of his tenants or servants but what will give him a good name. Some people call him proud; but I am sure I never saw any thing of it. To my fancy, it is only because he does not rattle away

like other young men.’(188)

“지주로서도 주인 나리로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요즘의 막돼먹은 젊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분의 소작인이나 하인 치고 그분을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분더러 거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진 한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다른 젊은이들처럼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지 딴 이유가 없어요.”

다아시의 의식 변화는 썸벌리 저택을 방문한 가드너 부부의 지적인 면과 점잖은 태도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그들을 정중한 태도로 맞는 그의 행동에서 보여준다. 이전에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사람과의 교제를 다아시 스스로가 원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변화를 말해준다. 다아시는 가드너 부부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편견을 버리게 되고, 허식과 권위 등 기존 가치체계에 저항하는 독립적 성격을 지닌 엘리자베스를 그녀 자체로서 사랑하게 된다. 이로써 이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서로의 실재와 독립성을 받아들일게 되고 상호존중과 협력, 신뢰 속에서 서로에게 다가서게 된다. 다아시의 도움으로 리디아와 위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되자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다아시보다도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엘리자베스는 그가 신중한 사고력과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강한 주관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더구나 다아시가 그와는 전혀 다른 신분이며 재산이 없는 자신을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랑해 주었음을 알게 되고 이것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감사하게 여긴다.

다아시와 엘리자베스의 결합으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다아시와 엘리자베스가 함께 공유하는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과 화해, 결혼을 통해서 펨벌리 사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로 이루어지게 되고,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대립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있다. 이처럼 펨벌리는 가부장제 사회의 폐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양 성(性)의 조화로운 결합과 외부 세계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힘을 갖는다. 롱번과 헨스퍼드에서 볼 수 있었던 부부사이의 종속관계와 무관심, 몰이해는 사라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나타난다. 이 관계는 여성이 가부장 사회 속에서 그 사회가 부여하는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아개발의 노력으로 우매한 아내이기를 거부하고 남편과 동등한 이성과 지성을 갖춘 인격인이 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펨벌리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여성이 당당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편견』에서 굳이 이 곳을 화합과 조화의 장소로 나타내는 것은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배격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자체들을 변화시킴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변화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옛 전통사회에 개인의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개인의 활력에는 다른 사회에 대한 어떤 편견이 가미되어서는 안되는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펨벌리는 기존의 모순된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체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더욱 활력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결속과 행복을 지향하는 힘과 자율성을 가진 펨벌리 사회 속에서 다아시와 엘리자

베스의 결합은 바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둘의 결혼으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분별력 혹은 명랑함을 포기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다아시와의 결합은 그녀의 풍자적 명랑함을 더욱 깊고 풍요하게 만들 것(70)이라고 가리스(Robert Garis)는 예견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느 한 성의 우월이나 열등이 있을 수 없으며 상호이해를 통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오만과 편견』에서 보여지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우열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존중이 가미된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아 기존의 결혼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남녀관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남녀의 새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는 남녀의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평등사회를 지향하게 된다.

19세기 초반의 서구 역사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편견』에서는 당대 여성이 처해있던 현실이 남다른 통찰력으로 보여지고 그 시대가 담고 있는 여성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 제시 가능한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습에 젖어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회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통찰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더욱이 문제제시 뿐만 아니라 남녀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했다. 『오만과 편견』에는 배우자들의 점진적인 사회 계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결합을 위하여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관계에 교육적 요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엘리자베스를 중용과 조화를 꾀하는 남성과 결합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녀 주인공 사이에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 사회 속에 함께 깨어있는 의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며 융화되어 가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 교육적 요소에 의해 주인공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성적 판단과 이해

를 토대로 한 결합을 하여 진실된 사랑을 경험한다. 그리고 사회불균형의 개선에 이바지할 기반을 다진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의 영국은 신이나 영혼 문제를 떠나서 인간 자신의 문제와 인간과 사회간의 문제에 관심을 돌린 시기였다. 그럼에도 그 당시 결혼관은 상호간의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가문이나 재산 위주의 것이었다. 또한 이 시대의 사회는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였다. 그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는 결혼을 잘 하는 것이었다. 당대 사회 남성들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법률, 논리학, 문학, 수사학, 신학 등으로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반해, 여성들은 그러한 교육에서 제외되었으며 그들을 위한 교육제도란 기숙학교(boarding school)에 보내어져 받는 교육 정도였다. 그 곳에서 그들이 받는 교육은 교양을 갖추는 수준의 음악, 그림, 춤과 외국어 정도의 남성을 유혹하는데 유리한 감성교육으로, 결코 자신들의 지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스톤(Lawrence Stone)은 소녀들이 기숙학교에서 받는 교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스톤은 소녀들이 받았던 바느질이나 paper-cutting과 같은 교육이 결코 그들의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229). 『오만과 편견』에서도 레이디 캐더린은 교육을 확실하고 규칙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가정교사만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녀가 엘리자베스에게 묻는 교육의 정도는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부를 줄 아는지 또 미술공부는 했는지 정도이다. 오스틴이 살던 시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내면적 자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신념이 없었다. 여성의 사회적 이상과 목표는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재산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갖가지 취미와 교양있는 태도만 갖추려 했고 학문적인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은 그

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즉 여성들의 교육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다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남성을 유혹하여 결혼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들이 받는 교육인 논리학이나 철학, 신학 등은 여성들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여성의 순결, 아름다움, 순종 등을 여성다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모든 여성이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간주하였다.

오스틴이 비난하는 것은 여성들이 받는 그러한 교육자체가 아니라는 사실(163)을 로버츠(Warren Roberts)는 지적한다. 오스틴이 비난하는 것은 여성들의 지성을 계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정신을 억압하는 교육임을 로버츠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와 감성 위주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우매하고 현명하지 못한 여성으로 전락하고 이런 교육이 다음 세대로 전이됨으로써 악순환은 계속된다. 이처럼 19세기에 있어 여성교육이란 공백상태와 다름없었고, 이런 교육이 여성들의 이성과 감성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가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와 수동적 역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뉴튼(Judith Lowder Newton)이 엘리자베스의 힘을 자율적인 힘 즉 개인적인 주관과 자기 방어의 힘(73)으로 지적하듯이, 가정교사에 의한 교육 대신 독서와 폭넓은 교제를 통해 그녀가 기른 것은 명민한 관찰력과 자기 판단력 그리고 확고한 자기 주장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자율성과 독자적 의지는 그녀가 자신을 여성 억압적인 사회이념의 틀에 끼워 맞추는 사회관습에 저항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

구너레인(Yasmine Goonerane)은 콜린즈씨의 구혼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거절은 그가 제공하는 물질적·사회적 안정에 대한 거절일 뿐만 아니라 그

녀를 판단하는 사회의 평가, 즉 가치 판단 기준에 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90)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엘리자베스의 성격에 대해 브레드슨(Thomas Bledson)은 엘리자베스가 작가인 오스틴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작가는 이 여주인공을 위시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비록 그녀가 단점도 지니긴 했지만 여러 면에서 자신을 깨우치고 일깨울 줄 아는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84)고 말한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여자들이 외적인 것 외에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보다 본질적인 것 즉, 정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다아시의 입을 통하여 새로운 여성교육관에 대해 피력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는 바로 이러한 교육관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다. 그녀는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며,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모든 과정을 배움의 현장으로 이용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분별력의 한계를 확장한다. 또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는 등 늘 자기 발전에 정진함으로서 고등 교육을 받은 인물들을 능가하는 인격체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만과 편견』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여성은 다시 사고하게 되고 엘리자베스를 통해 이성을 지닌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억압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상류계층의 허례허식을 초월하여 그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가 콜린즈의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에서 인습에 쫓겨나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회를 일깨워, 새롭고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교육적 요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결혼이란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기에 콜린즈의 청혼을 거절함으로써 엘리자베스에게는 정당하고 떳떳한 이유로 다아시와 같은 부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스틴의 작품 세계의 매력은 주로 그 인물들에게서 나온다. 여주인공이

나 남자 주인공 모두 나름의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점들은 두 주인공간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주는 것이며 쌍방향 상호 작용을 통해 양성간의 바람직한 이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실로 이러한 가능성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을 통해 극대화된다. 그들의 결혼은 콜린즈와 샬럿의 결혼에서 보이는 경제적 조건과 서로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결합이나 위컴과 리디아의 결혼에서와 같은 책임이 결여된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토대로 한 안정된 결합인 것이다. 물론 빙리와 제인의 결혼도 이상적 결합이나 사랑의 시련을 겪지 않은 결합이기에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완전한 결합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완전한 정신적 성숙의 증거이며 『오만과 편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겐트는 다아시와 엘리자베스의 결합은 다양한 상호보완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빙리와 제인의 결혼에서보다 복잡다단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은 여성론적 입장에서 볼 때, 엘리자베스가 결국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획득하고 그녀의 자아 인식 과정이란 더 조건이 좋은 가부장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 입장도 있다. 그들의 결합을 “시련을 겪어 이겨낸 행복한 보상”쯤으로 바라보며 오스틴 소설의 결말이 당대 사회의 현실과 거리가 먼 소원 성취적인 비전으로 본다(367). 작품에 대한 비평이 이렇듯 상반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스틴 뿐 만 아니라 당시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도 그러한 것이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작가로서의 역할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엘리자베스의 자연스러움과 쾌활한 모습에서 다아시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태도는 개선될 수 있으며, 한편 다아시의 판단력과 견문과 세상에 관한 지식에서 그녀는 매우

귀중한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214). 라며 두 사람의 결합에 대해 양성
에 대한 정신적인 성숙의 도달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오만과 편
견』은 이 두 사람의 결합이 분별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식의 개선에 대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스틴이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의 새로운 차원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이성의 강조는
오스틴이 작품 속의 여주인공을 가부장제에 편승시키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여지거나 왜곡된 존재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가부장제에 편승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면 콜린즈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것이며, 낭만적 사랑만을 중
시했다면 위컴을 선택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은 서로의
감정과 사랑을 존중하며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
할 수 있고, 서로의 내면적 성숙 단계를 이끄는 긍정적 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부모의 역할과 엘리자베스의 결혼에 초점을 두어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실패와 각성 후에 얻어지는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의식이 바로선 모습이 투영된 엘리자베스를 내세워 기존 사회제도나 그릇된 통념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협의적 의미에서의 사회인 가정에서 중심인물인 부모를 무력하고 무책임하게 설정함으로써 사회를 비판하였다. 『오만과 편견』에서 무능력하고 우매한 양상을 띠는 부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과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하게 인식시킨 후 이상적인 부모상을 제시해 주고 나아가 사회 계몽의지를 나타내고자 함이다. 대리부모상으로 나타났던 가드너부부가 여행의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이를 가정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될 사회의 모습에서는 자연이 보여주는 조화로움이 담겨있을 거라는 교육적 요소를 알 수 있었다. 다아시와 위컴의 유언 속에서 보여주는 너무도 훌륭하고 이상적인 부친들의 유대감에서 서로간의 인정 및 융합이 앞으로의 세대들이 추구해야될 과제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아무리 이상적인 부친이라 하더라도 다아시가 오만하다는 인상을 가지도록 유도했다는 다아시의 고백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조차도 그 이면에는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부정적인 모습까지 함께 제시하는 이유는 엘리자베스의 편견도 다아시의 오만도 절대적인 해결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서서히 융화되고 유연해지는 점을 배워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음이다.

베넷부부의 결혼에서는 서로가 조화되지 못하여 자식들은 방임된 상태로 나타나는 양상이 많았다. 엘리자베스의 기존가치와 관습에 대한 저항과 환경을 극복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실패를 겪게 된다. 여기에서 그녀가 실패해야 했던 원인을 주로 ‘부모역할’ 측면에서 고려해본 결과, 부모의 자식 교육에의 부족함이 엘리자베스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고 ‘환경을 극복한 개인의 자질’ 측면에 엘리자베스를 창조해 놓았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베넷씨의 격려로 엘리자베스 자신이 닦은 지적 영민함은 가족들의 어리석음을 자신과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느끼는 자만심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인 우수함과 여타의 장점들이 완전하게 발휘되지 못하였다. 작품 속에는 성실하고 착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며, 사회를 받아들이는 인물에게는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지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불행을 면치 못하는 결론이 내려진다. 『오만과 편견』에서 나타나는 인생관은 현실을 바르게 보고 세상과 타협하는 긍정적인 시각이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융합을 주장하는 사회관인 것이다. 『오만과 편견』에는 자녀인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세대에 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자들의 점진적인 사회 계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결합을 위하여 그들 관계에 교육적 요소를 부여하고 있다.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는 중용과 조화를 피하는 남성과 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녀 주인공 사이에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 사회 속에 함께 진정으로 깨어있는 의식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에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도록 유연하게 역할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조금씩 사회로의 변화를 시도하며 융화되어 가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 교육적 요소에 의해 주인공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성적 판단과 이해를 토대로 한 결합을 하여 진실된 사랑을 경험한다. 그리고 사회 불균형의 개선에 이바지할 기반을 다진다. 그러므로 엘리자베스는 기존가치와 관습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사회 속의 일원임을 받아들

이고 사회와 타협점을 찾게 된다. 협의적 의미에서의 사회 속의 가족의 중심 인물인 부모들에 대한 비판은 가족과 사회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존재가 지닌 본래의 의미와 책임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켜 올바른 인생관과 사회관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인다고 보아진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재기 발달한 엘리자베스를 등장시킴으로써 사회 인식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다른 성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수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지성, 언변, 풍자적 시각을 지닌 여성이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이 여성에게 주는 안락함 뒤에는 여성을 억압하는 충분한 대가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 자신에게도 결혼은 개인적으로 절박한 문제였으나 자신의 기준에 진지하게 비춰보며 검토하고 사고하는 가운데, 사회에서 결정론적으로 주어지는 여성의 운명을 넘어선 정체성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모든 여성이 남편감을 쫓는 일에 매진해야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듯 전통적 가치관에서 제시하는 사회상과 전혀 반대되는 사회상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들의 결합으로 이어지는 자녀상인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와 그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다아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엘리자베스나 다아시 같은 이성과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는 성별의 문제를 떠나 오만과 편견이라는 인간적인 결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아 인식과 상호 이해라는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정신적 변화만큼이나 다아시의 정신적 변화도 중요한 단계인데, 그 단계를 거쳐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렇게 이루어진 결혼은 조화로운 지성과 감성의 대등한 상호 결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만과 편견』이 쓰여질 당시 사회상의 지위와 생활 모습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다. 『오만과 편견』에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라는 자녀상을 두고 융합적 존재로 보고 그들을 기존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결함을 돌아보고 이성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사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Works Cited

- Allen, Water. *The English Novel: A Short Critical History*. New York: Penguin Books, 1954.
-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Ed. James Kins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Brian, Southam. *Critical Essays on Jane Austen* London: Routledge, 1968.
- Brown, Julia Prewitt. *Jane Austen's Novels: Social Change and Literary Form*. Cambridge, Mass.: Harvard UP, 1979.
- Chapman, R.W. ed. *Jane Austen's Letters to Her Sisters Cassandra and Others*. London: Oxford UP, 1952.
- Chodorow, Nancy. "Gender, Relation and Difference in *Psychoanalytic Perspective*." *The Future of Difference*. Eds. Hester Eisenstein and Alice Jardine. New Brunswick: Rutgers UP, 1987.
- Drew, Elizabeth. *The Novel: A Modern*.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8.
- Duvall, E.M. *Family Development and Marriage*. United States of America: J.B. Lippincott Co., 1977.
- Garis, Robert. *Learning Experience and Change: Critical Essays on Jane Austen*. Ed. B.C. Southa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1968.
- Gooneratne, Yasmine. *Jane Austen*. Cambridge: Cambridge UP, 1970.
- Hardy, Barbara. *A Reading of Jane Austen*. London: The Athlone Press, 1979.
- Marilyn Butler. *Jane Austen and the War of Ideas*. Clarendon: Oxford UP, 1987.
- Mansell, Darrel. *The Novels of Jane Austen: An Introduction* London: Macmillan, 1973.
- Evans, Mary. *Jane Austen and the State*. London: Tavistock, 1978.
- Moers, Ellen. *Literary Woman*. New York: Doubleday, 1976.
- Mudrick, Marvin. *Jane Austen: Irony as Defense and Discovery*. Princeton: Princeton UP, 1952.
- Newton, Judith Lowder. *Women, Power, and Subversion: Social Strategies in British Fiction 1778-1860*. Athens: UP, 1980.
- Simpson, Richard. "Jane Austen as Ironist and Moralist" In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Norton, 1966.
-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ew York: Harper & Row, 1979.
- Tanner, Tony. Introduction. In *Pride and Prejudic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 Thomas, Bledson, et. al. *Jane Austen: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66.
- Trilling, Lionel. *Beyond Culture: Essays on Literature and Learning*. New York: Viking, 1965.

- Van Ghent, Dorothy. *The English Novel: Form and Function*. New York: Holt, 1953.
- — —. "On *Pride and Prejudice*." In *Pride and Prejudice: An Authoritative Text, Backgrounds, Reviews and Essays in Criticism*. Ed. Donald J. Gray. New York: Norton Co, 1996.
- Warren, Roberts. *Jane Austen and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Macmillan, 1979.
- Wollstonecraft, Mary. *A Vindication of the Right of Women*. Ed. Norton New York: Norton Co, 2001.

ABSTRACT

A Study on *Pride and Prejudice* (1813):

The Role of Parents and Elizabeth's Marriage

Kim Yu-jung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Eighteenth-century England is characterized as a transition period that portrays conflict between the conventional class system and the increasing changes brought about with capitalism and its growing market. In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the author both dramatically emphasizes the pedagogic factor of parenting and critically exposes the British upper class and its patriarchal tradition as unjust and inefficient. In the novel's depiction of a failing patriarchal system, Austen introduces the Bennet family complete with its powerless patriarch Mr. Bennet; an economically ambitious yet senseless mother Mrs. Bennet; and, the trial and error of five

daughters in their search for husbands and happiness. Austen symbolizes the turmoil of her century through the detailed, ludicrous, and dysfunctional depiction of Mr. and Mrs. Bennet and their pedagogic influence on their daughters. Both learning from and rebelling against the parental models of Mr. and Mrs. Bennet, the trial-and-error narrative of the five Bennet daughters-- Jane Bennet, Elizabeth Bennet, Mary Bennet, Kitty Bennet, Lydia Bennet --provides an analysis of the social adaptation of parents and children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In sharp contrast to the Bennets, Austen portrays Mr. and Mrs. Gardiner as the prototype parental models who share their sincerity, wisdom, and love with their nieces. The Gardiners' influential relationship with their second niece, Elizabeth Bennet, proves to be beneficial and educational in contrast to the painful embarrassments Elizabeth suffers from due to the lack of guidance from her parents--Mr. and Mrs. Benne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new and unconventional characteristics Austen attributes to her heroine Elizabeth who, then, must struggle with the unfavorable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both she and her family. Elizabeth undergoes various changes as she learns about herself and the current values of her society. She both adapts and pursues changes as she eventually matures and marries. Next, Austen introduces a

newly improved hero, Mr. Darcy, who also undergoes a similar process of learning and adapting to changes in order to be able to both love and understand his new bride, Elizabeth. Together Elizabeth and Darcy portray a future that builds upon trust, love, and equality rather than inheritance, family name, and prescribed social roles. Austen attempts to show how reasonable relationships are developed from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teractions and how both men and women must change in order to create a healthier and more stable home and society. Austen strived to both expose the conventional patriarchal class system and introduce a new social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